

UPASIKA PRAISED CONTENTS

- | | |
|----|---|
| 02 | 발행인 칼럼 이기향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108인 여성리더들 |
| 04 | 불교와 여성 박원자
모정불심 |
| 06 |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이영희
전국바구니회 회장 광용스님 |
| 09 | 108인 기획 인터뷰 전영숙
선무(禪舞), 간화선을 춤에 담다/이선옥 2차 108인 |
| 12 | 현장스케치 사기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
| 16 | 특별활동보고 남혜정
영평사가족템플스테이 |
| 20 |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최혜경
단호박 |
| 22 | 사무국 소식 |
| 25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29 | 회원 동정 |
| 30 | 재정동참 현황 |

우바이예찬

2024년 90호

[발행인] 이기향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김보미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047)서울시중로구자하문로30길20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 이미지]

2013년 4월 9일 창단하여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불교여성개발원 위즈덤합창단

이호옥 단장, 김양희 지휘자, 김경미 반주자 외 단원들
사진촬영: 최배문 사진가

합창단원: 권승오 김경란 김여주 김옥경 김재란 서예석
송은주 신지율 신현옥 어순아 윤인숙 이호옥 이희숙
장미숙 정재선 황경자 황은복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108 여성리더들

청로몽_푸른 노을의 꿈: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만드는 작품세계

한여름 장마에 들어섰으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개발원은 청로몽 열기로 뜨겁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대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온 집행부는 국민 화합의 결림돌이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문화적으로 해소해보자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2024년 1월에 결성된 실행위원회는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집, 청로몽'을 기획하고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기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1년간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여대상은 최고의 여성 인력 풀을 자랑하는 개발원의 시니어 회원들과 공모를 통해 지원한 청년들, 각 33명입니다. 참여하는 시니어와 청년, 예술여섯 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적 체험을 거친 후 팀 결과물을 제작합니다. 시니어 그룹은 주로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거나 미술심리 치료사, 코칭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일생을 헌신한 분들로 이루어지며, 청년 그룹은 북한 이탈주민, 이주 배경 청년 외 청년 예술가 지망생들로 구성됩니다. 청로몽의 주안점은 청년과 시니어가 진솔한 소통을 이루어 가는 데 있으며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지난 5월 8일, (사)지혜로운여성은 여성의 보살핌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의 사회적 기틀을 세우고자 노력해 온 (사)지혜로운 여성은 앞으로도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모든 가족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2024 가을 리더십 프로그램 '세.알.시' 기획

불교여성개발원은 출범 당시의 이상과 목표의 수호를 위해 108 회원들 사이 연대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의 리더십과정 "나, 너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기"는 여성불자로서의 역량강화 및 108 회원의 연대형성을 이룩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를 본보기로 2024년 가을에 '세.알.시_변화하는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을 기획합니다. 신박한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깨어 있기를 희망하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정신적, 신앙적 활력이 충만할 때 다시 피어날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

개발원의 청운동 이전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 기획했던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을 잠정 연기합니다. 원장으로서 2023년 하반기부터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에 필요한 외부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으나 안타깝게도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시절 인연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의 원만 성취를 발원하며

올 초, 청곡문화장학재단에서 불교여성개발원에 1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위탁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중생 구제에 헌신한 청곡선생의 유지에 따라 개발원은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비구니 5분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爾命我命_당신의 목숨은 곧 나의 목숨'이라는 철학으로 출범한 재단의 높은 이상을 불교여성개발원을 통해 구현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개발원의 명상리더십센터는 작년 3월부터 인기리 진행해 오던 茶와 禪 강의를 종료하고 오는 9월부터 부처님의 상담법_활용 및 실습을 시작합니다. 한국불교상담학회장을 역임한 백경임 박사(2차 108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습을 통해 자신의 업식을 바꿈으로써 행복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는 무용을 활용한 명상 훈련인 선무 수업 오픈특강이 있었습니다. 이선옥박사(2차 108인)에 의해 창시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선무는 아름다운 동작으로 선의 세계에 다가가는 매력적인 명상법입니다. 선무 수강생들은 무드라와 행선 동작을 통해 '이 뭐꼬'라는 화두에 몰입하는 체험이 가능해졌으며 이어 실시된 집중수업을 통해 세 분의 스트레스관리 명상가가 배출되었습니다. 5월 끝자락에 열렸던 제16회 바자회가 성황리에 회향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인숙 고문께서는 수고한 회원들을 위해 호암박물관에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의 전시관람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셨습니다. 고문님과 흥나희관장께(4차 108인) 합장 올립니다. 한편 매달 셋째 금요일에 열리는 지혜아카데미는 108 회원 가운데 전문성이 뛰어난 강사진들이 개발원 안팎의 회원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8월 말, 지혜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재활용"공모전에도 회원님들의 관심어린 참여를 기다립니다.

평생 연마한 전문역량으로 회향 정진하시는 108여성 리더들이시여! 여러분의 지혜와 공덕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오늘도 순항중입니다. 집행부는 그 동력으로 2024 가을 리더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합니다. "세.알.시: 급변하는 세상 알아가기"는 108여성 리더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사바세계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신박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모정불심에 담긴 여성과 불교

올 봄 4월에 책을 하나 출간했다. 제목은 『모정불심』, 부제는 ‘어머니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스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다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다. 어머니와 은사 스님이 그 분들이다. 출가인연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고, 은사스님은 출가 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어머니와 같은 분이기 때문이다. 스님들에게 헌신을 다했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써보리라 생각했다. 스님들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금과옥조와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을 촉발시켜준 분은 해인사 방장과 종정을 지내신 법전 큰스님이였다. 스님께서는 평소 말씀이 없으시기로 유명한데 당신의 일대기를 준비하는 작가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는지 세세하게 지난날들을 떠올려주셨다. 담담히 당신이 건너오신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길게 머물며 촘촘하게 기억하신 분은 어머니였다. 그때 생각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승속을 막론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그때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나름 좋은 어머니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때라 스님께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여쭙었던 기억이 난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한편으로 자비심으로 남을 돕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근본(참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 맹인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걸핏하면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의 교육에 대해 여쭙자 법전스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큰 가르침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다. 드디어 몇 년 전 《현대불교》에 스님들의 어머니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1년 반 동안 연재하면서 많은 스님들을 만났다.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몇 분의 재가불자들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스님들께서 들려준 어머니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말씀은 자식 둘을 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여쭙자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고개 숙여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라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품어내는 것이 어머니들이 할 일이라고 대답하시던 운문사 율주 일진스님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다. 각자 다른 인생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경주 중흥사 예진 스님의 말씀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금쪽같은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비우고 비워서 허공이 되고 낮추고 낮추어서 바다가 되어야 어머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참아야 돼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냥 한 100일만 참아보세요, 안 되면 1년, 3년, 그러고도 안 되면 30년 참으면 세상에 안 될 일

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이 깊고 사랑이 넘쳤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던 다람살라 동규갓찰링 설립자 텐진빠모 스님의 말씀도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불법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사랑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장점 중의 하나는 자식을 통해 광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모든 존재에 대해 사랑을 펼쳐가는 기반으로 이 경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을 지내신 김인숙 교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의 말씀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저희 어머니는 말보다 실천이 앞섰던 분이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도와주셨죠, 1분도 안 걸렸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면서 보시 실천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연재가 끝나고 단행본으로 엮어 출간한 『모정불심』에는 스물세 분의 스님들과 재가불자 다섯 분의 어머니 이야기가 실려 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주셨다. 혹은 길게 혹은 짧게 문자로 보내온 글들을 읽으며 내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공감해주신 것 같아 책을 낸 보람을 느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분별심을 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머니들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도인이 되어가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독자이자 어머니로서 저 자신도 자식을 기르는 길이 바로 도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전영숙 선생님의 독후감은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공감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 사찰음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선재스님은 책을 다 읽고 이렇게 독후감을 전해오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님 마음 특히 스님을 낳고 기르신 인연이 어찌 작은 인연이었습니까.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보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님 아버님의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에 표현도 못하고 보답해 드리지 못했음에 눈물이 흐르네요. 다음 생에도 또 너의 엄마가 되어서 딸의 수행을 도와주고 싶다는 텐진빠모 스님의 어머니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뒷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책 덕분에 모든 스님들의 어머니들이 보살의 화현, 선지식임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어머니들이 존경받으셔야 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책이 출간되고 얼마 안 돼 마침 《우바이예찬》에서 ‘여성과 불교’에 대한 원고를 청탁받았다. 여성들이 실천해야 할 불교가 책 곳곳 스님들의 말씀에 스며있기에 새 책 『모정불심』 이야기로 대신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



작년 2023년 11월 14일 13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취임하신 광용스님을 뵈러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을 찾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 기대어 있다 오고 싶은 큰언니를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이기향 원장과 편집위원 2인이 각자 있던 곳에서 출발하였다. 12대 회장이셨던 본각스님을 도와 부회장으로 함께 일하시면서 틈틈이 손보아 오신 회관 주변이 환하다. 입구의 작은 도심 꽃밭에서부터 오래된 건물 내부의 바닥, 벽 공사까지 지금은 깔끔하고 상큼한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이제 13대 회장스님으로 전국비구니스님들을 대표하고 스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일정이 빽빽한 스님께 일 배의 예를 올렸다.

정말 큰 언니처럼 반갑고 소탈하게 일행을 맞아주시며 첫 말씀부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힘든 덕분에 부처님공부하라고 이렇게 환경

을 펼쳐주시는구나” 마음먹으면 그것이 바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시며 밝게 웃으신다. 스님의 웃음에 전염되어 다 함께 웃으며 원장님의 화답도 이어졌다. “제 디자인의 원천도 자연입니다. 자연은 다 둥글지요. 제 디자인 모티브로 자주 쓰이는 보주 역시 자연의 둥근 원만성에서 영감을 받았습시다.”

“이 세상 제일 어려운 게 말이잖아요. 말이 없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들 각자 자신의 심기대로 들어.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길을 걷는 거지. 특히 장을 맡은 사람은 더 외로워.” 다독이시는 말씀에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 스님께 출가 이야기를 여쭙었다. 물론 스님께서 1972년 부천 소림사에서 출가하여 1973년 사미니계를,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으며 1979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동국대 불교학과와 2007년 동대학원 불교학과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는 공식적인 기록 말고 속마음에 담긴 발심 계기가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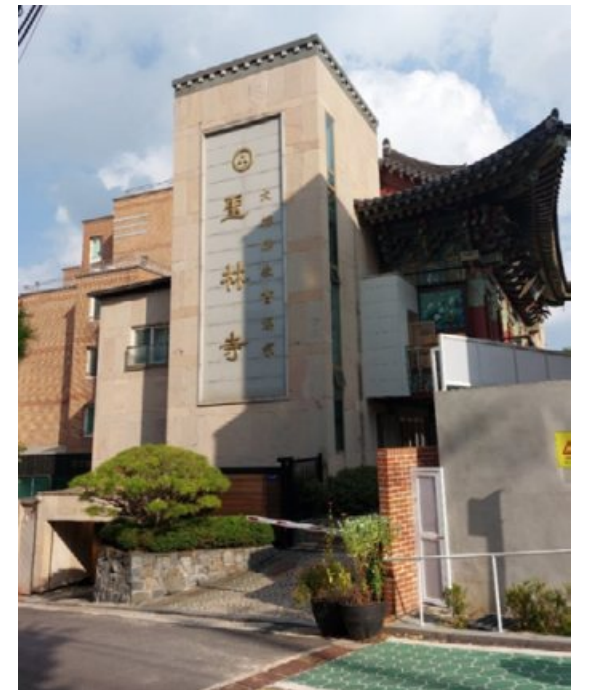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아들이 귀했던 집안에 딸로 태어나면서 기억도 형성되기 전 느낀, 환영받지 못한다는 근본적 아픔과 슬픔, 그리고 유아 사망이 흔했던 시절 어린 동생들을 잃으시고 몹시 슬퍼하시던 어머니를 보면서 온 집안이 울고불고 하던 일을 겪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막연히 ‘나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아기가 죽으면 너무도 슬프잖아.’하면서 ‘죽음의 이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 같아. 죽음의 이별을 보면서 무상과 슬픔을 절실히 느끼다 보니 독신을 선호했던 거 같습니다.”

“게다가 먼 친척댁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언제 우리 집에 오셨길래 ‘거기에 가서 뭐 합니까? 스님 따라가면 뭐 합니까?’ 하고 물으니 공부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뭇도 할 수 있고, 뭇도 한대. ‘그래서 혼자 삼니까?’ 하고 물으니 혼자 산대. 그 말에 바로 짐을 썼지. 19살에.” 절에 가서 하는 공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 이런 공부가 있었네’ 너무도 좋아 집에 가서 가족 모두 스님이 되자고 말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지.

스님은 1994년 영등포구에 대림포교원을 개원했고 2010년 서울 마포구에 성림사를 창건해 포교와 함께 심리상담사로도 활동하며 지역 사람들의 마음치유에 힘써왔다. 2018년에는 마포구청 공무원 불심회를 창립하고 2년 동안 마포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아 공무원 포교에 앞장섰고 불교상담개발원 이사과 봉녕사 묘엄불교문화재단 이사를 맡는 등 불법 흥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 공로상, 마포구청장 문화예술부문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불법을 만난 게 너무도 감사하니까 타인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도심포교원도 오픈했고 많은 법회도 열었고 또 상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사를 알아서 부처님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심리를 공부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민도 깊게 들어주고 싶었고 함께 공감해 주고 싶었다. “저는 일부러 의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당장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다면 부처님을 마음에 품고 신심으로 살아가자고 하신다. 그대 삶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기에.

끝으로 하시는 수행을 여쭙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건 수행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수익 100%야.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지극하게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휴식과 고유함, 평화로움, 감사함, 그윽함이 있고 향유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말로 알려주기가 힘들어. 사랑의 달콤함을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이별의 뼈 아픔을 어떻게 말로 해서 일러주겠어요? 그와 같이 이 공부는 경험이야. 그래서 전 여기(회관) 있으면서도 꼭 새벽에는 안 자요. 명상 수행만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에너지를 응축시킬 수가 있고, 나를 힐링해 줄 수 있는 보배야. 이걸 솔직한 겁니다. 제가 선방 안거만 산 거는 아니지만 근데 좋은 건 압니다. 이곳 법통사에서 한 달에 두 번 수행결사를 하는데 참가자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 딱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딱 5분만 몸이 여기 이 소파에 묶였다. 고 생각하고 안 움직이는 겁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나도 5분을 한 번 있어 보세요. 호흡을 챙겨라, 눈을 감아라, 단전에 집중해라, 다 생각이야. 그냥 한 번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보세요. 어 그 5분 금방 갔네. 그럼 10분 앉아봐야지.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점점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게 되나?' 또 묻고 생각하잖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실전 경험밖에 없어. 우리가 과거도 살아봤지만 그걸로 현재를 사나, 또 내일 살아보고 오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지금 수행을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수행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선무(禪舞), 간화선을 춤에 담다 / 이선옥 2차 108인

이번 호에 소개할 2차 108인 이선옥 선생님은 간화선의 원리를 춤에 적용시켜 선무를 창안하고 세계화한 분이다. 선생님은 80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매주 목요일 개발원에서 선무를 지도하고 있다. 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시는 선생님을 청운동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이매방과 김백초, 전생의 카르마를 알아본 춤의 스승들

저는 7남매의 막내로 개성에서 태어났어요. 시쳇말로 이북 여자지요. 부친은 일찍 돌아가시고, 1.4 후퇴 때 모친이 우리를 끌고 걸어서 파주 장단에 도착한 후 배를 타고 강화도를 거쳐 부산까지 갔어요. 당시 제 나이 여섯 살, 공교롭게도 우리가 머물던 집 2층에 한국 전통춤의 거목 이매방 선생님이 살고 계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모습에 매료되어 날마다 2층을 다람쥐처럼 오르내리며 춤을 봤어요. 오빠들은 계집애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며 나무랐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딱 한 사람, 저희 모친만은 그런 저를 막지 않으셨죠. 독실한 불자라서 아마도 제 카르마를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4학년 무렵 서울로 올라와 김백초 무용소를 다녔어요. 처음에 언니는 어떻게든 제가 춤 배우는 걸 막아보려고 무용소에 찾아가 우리 가족은 개성서 피난 나와 돈이 없으니 동생을 받아주지 말라 애원했어요. 그런데도 김백초 선생님은 재주가 아깝다며 돈은 안 내도 괜찮으니 다니라고 해서 언니는 손을 들고 말았죠. 저는 학교가 파하면 삼각지 집에서 을지로 무용소까지 밤마다 전차를 타고 가서 춤을 배웠어요. 저는 이상하게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내야 하루가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그 후 숙명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마침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이 있었어요. 30명 남짓 뽑는 시험에 400명이 응시했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지만 열린 세상에서 맘껏 춤추며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통했던지 당당히 시험에 통과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어머니 · 송산스님 · 양익스님 그리고 송담스님, 선과 춤을 이어준 영적 스승들

아마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송산스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님을 뵈러 맨하탄에 있는 한국 사찰 원각사에 갔어요. 오랜만에 한국 절의 염불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모친은 하루도 빠짐없이 독경하시고 저녁에 문 닫고 딱 들어가서 염불을 시작하면 새벽에야 나오실 정도로 정진력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덕분에 식이 많아 보통 사람과 다른 비범한 면이 있으셨고요. 무어라 형언하기는 어렵지만 모친이 걸었던 어떤 정신적 면면이 갑자기 저에게도 절절히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송산스님을 만나면서 미친듯이 참선에 빨려들었어요. 저는 앉으나 서나 참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길가에 쓰인 글자도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2년을 보낸 것 같아요. 춤도 공부도 다 멈추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저를 보고 ‘너 이제 뭐 할 거냐?’ 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문득 자신도 모르게 ‘무용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어요. 스님이 ‘그러면 그리 해라.’ 하시길래 ‘춤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했더니 ‘네가 얘기해봐라.’ 하셨어요. 그러자 불현듯 제 입에서 ‘젠댄스(Zen Dance), 선무!’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지요. 이제 학교로 돌아가 석사와 박사를 다시 해야겠다고…… 그 무렵 저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맨하탄의 5층짜리 건물 중 한 층을 아티스트 레지던스로 만들어 한 쪽은 소극장으로, 다른 한 쪽은 예술인 아파트로 꾸며 예술가들이 상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송산스님을 이곳에 모셔와 서양인들이 스님의 지도하에 아침저녁으로 선을 배울 수 있도록 했지요.

그 후 1978년도에는 인천 용화사의 송담스님이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참석 차 미국에 오셨어요. 저는 저희 선센터에 오는 미국인 의사들을 데리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롱아일랜드에 갔어요. 스님은 ‘이뮬꼬’를 가지고 간화선 법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천 용화사를 찾아가서 출가하겠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계속 무용을 할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열반의 세계를 춤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머리 깎고는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출가는 안 했어요. 스님은 ‘굳이 출가하지 않아도 네 생각을 관(觀)하면 공부하는 네 몸이 절이요, 네 생각이 부처님이다.’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송담스님은 한국에서 법문을 하시면 항상 녹음을 해서 매달 미국에 있는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카세트테이프를 썼죠. 저는 보내주신 녹음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어요. 운전할 때도, 잠 잘 때도 …… 그래서 거의 외울 정도였고, 혼자 듣기 아까워서 79년부터 약 7,8년간 자비를 들여 스님의 법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았어요. 영어 표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주위 서양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나름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들였어요. 이처럼 송담스님을 만나 간화선의 원리를 선무에 적용해서(이뮬꼬 III의 전개: 선무안무법) 저만의 체계를 확립시켰어요. 그 후 선무는 미주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예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 세계 여러 지역의 이름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큰 호평을 받았어요.

범어사 청련암의 양익스님도 제게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분입니다. 스님은 불교 수인법에 관한 오래된 자료를 선뜻 내주시고,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신 금강승(禪武道) 교육 현장을 참관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제가 선무에 불교 수인법을 도입한 것은 양익 스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무와 금강승은 통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송산스님, 양익스님은 이제 모두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의 은혜는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선무, 휠체어에서도 출 수 있는 치유의 춤



뉴욕에서 무용소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참선에 미쳐 참선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며 공연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말 록펠러재단에서 기금을 받아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막상 한국에 나와서 공연을 하다 보니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고민 끝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활동해 보니 생각보다 제약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선생의 말이 수궁이 되면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쫓아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따지는 것을 좋아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뮬꼬’ 화두와 호흡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생각과 호흡과 동작이 하나가 되는 게 선무예요. 행선(行禪)의 원리를 춤선(舞禪)으로 만든 거죠. 볼래야 볼 수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 없고 알려고 해야 알 수 없는 그 자리, 단전에서부터 나가는 호흡이 이 손끝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따라 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제 곧 춤선이 돼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다 끊어지면서 모든 게 다 해소가 돼고 자유로워지죠.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선무는 휠체어에서도 출 수 있고, 중풍에 걸린 사람도 출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돼서 삼매에 이르는 거죠. 저는 제가 만든 선무 테라피로 저를 찾는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다가 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요즘은 초스피드시대라 부처님 가피도 빨리 입는다고 하더니...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전(3월 27일~6월 16일) 관람은 순전히 부처님 가피로 이루어졌다.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5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걸쳐 특별히 마련한 전시회, '동아시아 불교미술의 걸작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흔치 않은 전시', '불교 미술 속 여성을 주제로 세계 최초의 전시', '일본 도쿄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보스턴미술관, 독일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유물을 빌려온 블록버스터급 규모(국내외 27곳에서 불화와 불상, 나전경함 등 국내 40건, 해외 불교 미술품 52건으로 최초 전시품도 다수 포함)의 이생에 다시 못 볼 전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었다.

나는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들의 활동상을 보면서 늘 미안했다. 지난 바자회 때 부침개보살로 잠깐 나타난 것도 사실 미안한 마음의 소산이었다. 그런데 그 인연 덕분에 폐막 이틀 전인 6월 14일에 여성 불자 108인 여러분과 함께 관람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부처님 가피가 아니겠는가.



아침 일찍 출발하는 차량에서 “이렇듯 특별한 전시회를 열어준 호암미술관, 삼성가에 감사한다”는 이기향 불교여성개발 원장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 호암미술관의 아름다운 전통정원 희원(禧園)을 돌아보고, 전시회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돌아 나오는 순간까지 감사와 감동의 향연이었다. 1부 다시 나타나는 여성(여성의 몸:모성(母性)과 부정(不淨), 관음: 변신(變身)과 변성(變性), 여신들의 세계: 추앙과 길들임 사

이], 2부 여성의 행원(行願)[간절히 바라옵건대: 성불(成佛)과 왕생(往生), ‘암탉이 울 때’: 유교사회의 불교여성, 여공(女工): 바늘과 실의 공덕]로 크게 나누고 주제별로 전시해 놓은 모습은 장관이었다. 관람객이 많아서 밀리듯 주마간산격으로 본 것은 유감이었지만, 한편으론 그것 자체가 환희로웠다.



우리는 불모(佛母), 부처의 어머니다

나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전은 ‘한국 여성 불자들의 자화상 같은 전시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현신적인 여성 불자들 덕분에 불교에 희망이 있다’, ‘한국의 여성 불자가 보살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 여성 불자들의 ‘자비’, ‘현신’, ‘봉사’, ‘후원’, ‘기도’, ‘수행’이라는 유전자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닐 게다. 한 중 일 동아시아 여성들의 불심이 깃든 성보(聖寶)에서 ‘나’, ‘우리’들의 모습을 찾는 심정으로 관람하니 더욱 큰 감동이 밀려왔다.

석가탄생도와 함께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석가출가도(조선, 15세기, 족자, 비단에 채색, 금니, 287.8×125.0cm, 독일 쾰른 동아시아 미술관 소장) 역시 마음을 사로잡았다.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비록 길으로는 승유역불,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내세우고 불교를 탄압했지만, 왕실 여성들은 물론이고 만인이 불교를 깊이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기절한 듯 쓰러져 있는 야쇼다라 태자비, 주인 없이 홀로 돌아온 칸타카(백말)를 붙들고 우는 야쇼다라 태자비와 옥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옷깃을 여미고 있는 정반왕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진실한 삶의 길, 생로병사의 근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출가한다 해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가출가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못 궁금하다.

만인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벗어던지고 출가하여 깨달으신 석가모니 부처님... 온 우주의 이치를 깨치고 나서 처음 하



신 말씀이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구나” 하셨다. 부처님의 출가는 당신 인생의 전환점인 동시에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처로 만든 온 우주 최고 최대의 획기적 전환점이다.

어머니 관세음보살, 고려 불화의 백미 수월관음도

관세음보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 받은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S자 뒤탈가 고와서 여성의 허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소를 머금은 얼굴 모습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미소년이다. 7세기에 청소년의 모습이었던 관음보살은 10세기부터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송자관음보살도와 백자 송자관음보살좌상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아들 낳길 소원하는 여성들의 발원은 시공을 초월하기에...

경전에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소원에 따라 33응신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지만,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수많은 손과 눈으로 중생들의 소원을 듣고 성취시켜 주는 관세음보살상은 대체로 여성의 모습으로 나뉜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이쿠, 엄마” 하듯이 “예고, 관세음보살”이 된 것이다. 중생들을 위로해 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 주는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의 다른 이름이다.

고려불화의 백미로 손꼽히는 수월관음도,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된 반투명의 베일로 머리부터 하반신까지 늘어뜨린 수월관음도의 관세음보살이 어린 선재동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듯, 형용할 수 없는 자애가 담겨 있다. 관세음보살을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서 수월관음보살도를 본다. 남존

여비의 시대 상황 속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의 몸이었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살리는 여성의 본성은 관세음보살, 무조건 기대고 위로받고 싶은 그대 이름은 여성, 어머니 관세음보살...그러한 염원이 담긴 듯해 가슴이 울컥...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 전시장에서 느낀 소회를 원고지 몇 장에 담을 수 없는 일이다. 아름다운 여성이 죽어서 썩어가는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해 놓은 구상도도 인상적이었고, 인도의 토속신에서 유래했다는 마리지천 좌상(고려 10~14세기, 은에 도금, 금동, 국립중앙박물관)이 유행했다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리지천은 전란과 여행길의 위험을 비롯해 갖가지 고난에서 구해주는 여신이다. 고려 때 조성된 은제 마리지천이 여러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갑에 넣어서 지니고 다녔다는 점, 그만큼 널리 유행했음을 알려주는데, 해상무역이 발전한 불교국가 고려의 진면목을 작은 마리지천 좌상에서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은가.

간절히 바라옵건대, 성불과 왕생편에서 만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1~7도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각권의 앞쪽에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서 섬세하게 그린 변상도와 사경, 고려 사경의 걸작을 만난 인연에 감사 또 감사했다. 비단 바탕 위에 434체의 불좌상을 수놓아 시방 삼세에 존재하는 부처님을 표현한 중국 자수가사에 합장 배례했다. 한땀 한땀 부처님을 수놓으면서 여공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지금 나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하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일체중생 실유불성, 결국 너희 모두가 부처라는 말씀이다. 자수가사에 수많은 부처님이 수놓은 것은 우리 모두 부처가 되고 부처로 살기를 발원한 것이 아닐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부처님처럼 살면 그대로 부처이다.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고, 모든 사람을 부처로 섬기고 살 때 이 세상은 그대로 극락...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들의 원력이 부처님, 우리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분 좋은 날에... 





영평사 가족템플스테이

지난 6월22일, 23일 영108인과 2세들이 함께 3회차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세종시에 있는 영평사로 각자 출발해서 3시까지 모이기로 하여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모두 빠지지 않고 다들 모였고 우리 일행은 30분 전에 영평사에 도착하였다. 나는 10여 년 전 결성되었던 영108인들이 궁금했고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새로운 인물들 속에 예전의 영108인들의 모습이 보이자 무척 반가웠다. 세월은 흘러도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곁에 남편과 아이들이 같이 있었다.

씨앗이 꽃을 피워 지금 내 앞에서 있었다

이 행사가 나에게 남달리 다가오는 것은 10여 년 전 인연 때문이다. 2003년 그 당시 김애주 전 원장님이 재임하실 때에 웰다잉 문화대전, 여성광장 기금마련을 위한 '불교르네상스의꿈I' 그리고 영108 창립 등 큰일을 해내신 분이다. 나는 채식조리사센터장을 거쳐 사찰음식문화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년 뒤를 보며 미래 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에 젊은 불자들을 키워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젊은 불자들을 모아 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보람된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친척, 친구 등 주변에 불교를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찾아가며 모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불자들이 한 명씩 모여들었다.

작가, 앵커, 사업가, 회계사, 웹툰작가, 보험계리사, 대학강사, 직장인 등등 참하고 똑똑한 젊은 불자들이 많이 있다는 자부심이 생길 정도였다

제법 모였을 때 이태원 리움미술관 강당에서 그야말로 젊은 불자들의 모임인 영108을 성대하게 창립하였다.

영108을 위해 지도법사를 자청하신 여러 분야의 유명 불자인사들도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그 날 랩으로 했던 반야심경이 신선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결성이 되니 그들의 아이디어로 법륜스님을 모시고 즉문즉설도 열고, 또 젊은이들답게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빌려 옴 파티도 하고 또 나와 같이 젊은이들의 먹거리를 위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할 때는 선채스님과 연잎밥 등도 만들었었다. 그 후 그들의 만남은 소리 없이 이어져 갔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각자의 짝을 찾아 결혼도 하였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사회인으로 열심히들 살아가며 벌써 이들의 2세들이 초파일 때 동자승도 하였고 또 소그룹은 매월 만나며 절을 찾아다니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 영108인들이 다시 여성개발원에서 3회째 템플스테이를 하며 활성화하게 된 것은 현 원장님이신 이기향원장님께서 애쓰신 덕분이다.

이기향원장님과는 아이들 어릴 때 내가 다니는 절 어린이 법회팀장을 맡았을 때 도자기를 빚으시는 설봉스님께서 이어주신 인연이다. 그 자금으로 동국대에서 주최하는 연꽃노래잔치에 나갈 어린이 합창단복을 제작하려고 수소문하는 중에 미국에서 얼마 전에 들어오신 참신한 불자 의상학 교수님이 계시다고 스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다. 우리들의 부탁을 받고 손수 동대문에서 천을 떠서 맡기고 제작을 하시면서도 기꺼이 즐겁게 해주셨다. 그 고마움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 때 견본을 만들어 입혀 보았던 초등학교생이었던 나의 아들은 훗날 30년이 흘러 그분의 사위가 되었으니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10여년 전 김애주 원장님께서 씨앗을 심으셨다면 지금 이기향원장님께서 그 씨앗이 꽃을 피우게 해주셨으니 말이다.

다들 모아자 원장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 모두 자기소개를 하였다. 친진불들은 재잘거리면서 절하는 법도 같이 배우며 잘 따라하였다. 저녁 공양 때까지 마당에서 우산을 쓰고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미있게 뛰어놀았고 공양으로는 카레라이스가 나왔는데 무척이나 맛있었다.

공양을 마치고 나니 회주이신 환성스님과 차담이 정해져 있었다. 아이들은 미리 절하는 법을 배우지라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다 같이 합장하여 삼배의 예를 스님께 올렸다. 그것도 잠시 스님 찾상에 걸터앉아 이것저것 다기





들을 만져보고 질문하며 차담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장난을 치다가 나가서 놀라고 하니 그제서야 우르르 나가서 템플스테이 장소인 설선당으로 몰려갔다.

영108인 중 전문 진행자 이상으로 잘 하는 친구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손수건놀이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무척 재미있게 놀았다고 한다. 원장님, 이란 부원장님과 영108인 다수는 남아서 스님께서 따라주시는 차가운 연꽃차를 마시면서 차담을 하였다. 연꽃차는 차가울 때 향이 더 잘 우러난다고 하신다.

차를 계속 따라주시면서 스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연은 선인연, 악인연,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마음으로 살면 이 모든 인연을 잘 이어나갈수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셨다.

대자비심 등 여러 답을 제시했지만 모두 80점이라 하시고 스님께서는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몸을 둥글게 돌리며)을 하면 된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다.

내가 지금 바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다 등 스님의 좋은 말씀들을 깊이 새겨들으며 짧지 않은 차담을 마치고 절간의 고요한 적막속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고요한 새벽 산사에 울려 퍼지는 산사의 새벽 기도는 목탁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기도가 끝나자 이어서 회주 스님께서 호흡명상을 성우같이 편안한 목소리로 인도해 주셨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하는 호흡명상은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났다.

새벽예불이 끝나고 비가 오는 촉촉한 땅을 원장님과 맨발로 걸으며 주변을 산책하였다. 절 한켠에는 죽염된장 고추장 매실효소 장아찌를 담궜던 커다란 단지가 법당 옆 마당에 조희하는 학생들같이 정렬하여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불교방송에도 협찬하는 것을 들은바 있었는데 절 운영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대웅전 뒤로 올라가 한 바퀴를 돌아보니 추모공원도 엄숙하게 자리잡고 있고, 한 바퀴 돌아본 영평사는 스님의 원력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려오다 만난 연못에는 연꽃 한 송이가 봉우리 둘을 옆에 두고 맑고 선명한 색상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우아한 자태처럼 우리를 맞았다.

우리의 천진불들은 전날 밤 무척 재미나게 놀아서 다들 잠자는데 한 명의 천진불은 이쁘게도 잠옷바람으로 아빠엄마를 따라 새벽기도에 나와 법당에서 잠드니 엄마가 된 영108인은 아이들 먹인다고 각자가 밥을 챙겨가서 먹었다.



아침공양 후 자유 시간에 열심히 뛰어놀다가 10시에 모두 모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인사도 올리고 산신각에도 가서 절을 하며 각자 소원도 빌었다. 산신각 가는 길은 제법 높은 돌계단인데도 아주 어린 꼬마 천진불까지도 야무지게 올라갔다. 이어 설선당에 모여 108염주를 꿰었다. 염주알이 떼구르르 굴러 흩어져도 주워가면서 작은 손으로 염주 한 알 꿰고 반 배 하고 또 한 알 꿰고 반 배 하며 열심히 108염주를 다 꿰었다. 다 만들어진 염주를 목에 걸고는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했다.

하늘은 다시 맑아져 헤어질 때까지 마당에서 열심히 뛰어놀다 서로 인사를 하고 다음을 가약하며 헤어졌다. 10여 년 전에 만난 뜻뜻한 대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니 밝은 미래의 불교가 보여 내 마음도 같이 환해졌다. 이제 이 젊은 108인들이 계속 모이고 또 모여 10년 뒤에는 사회에 주축이 되는 중년이 되고 여기 모인 천진불들은 또 영108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열매를 맺고 또 씨가 뿌려지는 자연같이 말이다.

이들이 계속 이어서 불교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불교여성개발원의 큰 역할과 공덕으로 남게 되리라.

잠잠했던 영108인들을 모아 템플스테이를 벌써 3회나 하신 이기향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울 것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진행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애써주신 영평사 회주스님 및 모든 분들께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





단호박

이번 호에는 지금 수확이 한창인 단호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초봄(3월)에 파종하여 입맛 잃을 여름이면 탐스럽게 자라 주식으로, 간식으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단호박. 남아메리카 고원지대가 원산지로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많이 출하되는 미니 단호박은 당도가 뛰어나고 밤같은 식감으로 밤호박이라고도 하며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소화흡수가 잘 되어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단호박 100g이면 비타민A의 일일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하며 비타민 B.C가 풍부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며 면역력 향상, 장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항암효과, 피부미용, 감기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알맹이에는 없고 껍질에만 있는 펙놀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 푸드 중 하나인 단호박의 부작용으로는 당도가 높고, 먹기 편한 먹거리이므로 과식하면 멜라닌 양이 과다하게 되어 피부 침착 부작용과 비만이 될 수 있으므로 조절이 필요하다.

단호박을 이용한 요리는 수없이 많지만(단호박죽, 샐러드, 단호박 튀김, 단호박 셀러드 등), 오늘은 간식으로 주로 먹는 단호박찜, 수프나 국수 소스로 좋은 단호박스튜, 그리고 반찬으로 단호박조림을 소개하겠다.

1. 단호박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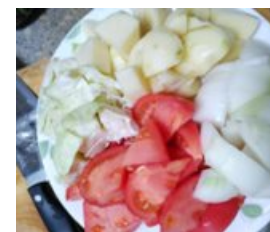
단호박을 찌 때는 전체를 자르지 않고 위 꼭지 부분을 떼내고, 3군데 정도 칼집을 넣고 찜통에 찌다. 너무 오래 찌지 않고 젓가락으로 찌러보아 익었으면 불을 끄고 2-3분 뜸을 들여 꺼낸 후 칼집 부분이 나뉘어지면 숟가락으로 속을 꺼내면 질척하지 않고 포송포송한 식감 좋은 단호박을 드실 수 있다.



2. 단호박스튜

재료: 단호박, 토마토, 양파, 양배추, 감자, 건표고, 토마토 농축물, 버터, 밀가루, 슬라이스 치즈, 소금, 우리밀 진간장
야채는 모두 썰어서 냄비에 버터를 녹이면서 토마토와 감자를 넣고 볶으면서 밀가루를 넣고 잘 볶은 후 우리밀 진간장을 조금 넣고 밀간을 한 후 채수나 다시마 우린 물, 또는 물을 넣고 끓이면서 양파와 양배추, 건표고 불린 것을 넣어서 10분 정도 중불에서 푹 무르면 마지막에 단호박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인다. (*단호박을 너무 일찍 넣거나 오래 끓이면 속이 다 풀어지고 껍질만 남으므로 주의 필요)

- 슬라이스 치즈와 토마토 농축물을 넣고 소량의 소금을 넣고 간을 본 후 마무리한다.
- 식성에 따라 후추를 넣거나 쇠고기를 곁거나 볶아서 스투 위에 토핑하여 들면 된다.



3. 단호박조림

재료: 단호박, 진간장, 현미유(식용유), 조청, 참기름

썬 단호박은 기름과 진간장으로 버무려 위에 조청을 얹고 뚜껑을 덮어 중불에 7분 정도 줄여 불을 끄고 잠시 뜸들인 후 참기름을 조금 넣고 완성한다.



손쉽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호불호가 거의 없고 요리가 다양하며, 영양이 우수한 먹거리 단호박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건디는 지혜로운 식탁을 꾸며 보면 어떠실까요?

사무국 소식

○운영위원회

매월 둘째 목요일 지혜실에서 정기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운영위원들은 5월 바자를 앞둔 구체적 실행계획을 의논하였고, 신입 문윤정 연구교육팀장이 소개되었다. 5월 9일에 '불교르네상스의꿈Ⅲ' 행사를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6월 13일에는 먼저 5월 있었던 바자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어 상반기 사업과 결산을 심의하는 임시이사회회의를 7월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금강경 100일(700일)기도 회향 및 800일 기도 입재

본원 금강경기도 동참자들은 4월 8일~9일 1박 2일 금강경기도 회향 및 입재차 지리산 선림사를 참배하였다. 창단 11주년을 맞이하는 위즈덤합창단 워크숍을 겸해 20명의 회원들이 함께한 이번 800일 기도 입재에는 대웅전에서 반주와 지휘에 맞춰 단원들의 음성공양과 함께한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젠댄스(선무) 강좌 진행

4월 25일 3층 자비실에서 이선옥 2차 108인의 지도로 젠댄스, 선무를 개강하여 7명이 수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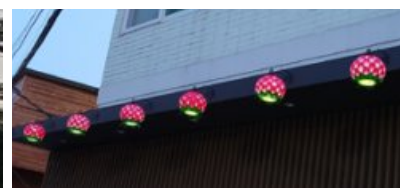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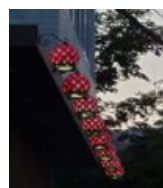
○여가부장관상 수상

(사)지혜로운여성은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지혜로운여성의 가족지원센터, 다문화 행복가족센터 등에서 가족과 관련한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실적을 인정받았고 각 센터장을 포함한 임원, 회원의 헌신, 보시, 참여의 성과라는 후평이다.



○본원 불교여성광장에 부처님오신날 연등

5월 11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여성광장에 연등 8개를 달았다. 태양광이 내장된 연등으로 어둠이 내리면 등이 켜지고, 해가 뜨면 등이 꺼져 청운동 주변을 밝혔다. 정대련 부원장이 연등관련 비용을 후원하였다.



사무국 소식

○(사)우리는 선우, 본원 방문

5월 11일, 지난 30여 년 재가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자랑하고 있는 (사)우리는 선우는 도심 사찰 3사 순례의 일환으로 본원을 방문하고 재가 불자들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리는 선우에는 본원 108인 9인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의사협회 등 다문화 지원 논의

5월 14일 한국여의사협회 소속 여의사 이순재 생명존중운본부 본부장과 정인주 교정교화센터 후원자가 이옥빈 베트남 팀장과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서 증정

김인숙 1차 108인이 박원자 5차 108인이 쓴 『모정불심』 30권을 1-3차 108 임원들한테 증정하였다. 성민선 3차 108인도 본인의 에세이집 『날마다 전성기』 20권을 운영위원과 고문들한테 증정했다.



○옥수수과 감자 증정

김옥주 강원지원장(7차 108인)이 옥수수 2박스, 이명숙 전 강원지원장(6차 108인)이 감자 3박스, 황인보 5차 108인이 감자, 양파 그리고 텃밭에서 농사지은 여름 제철 식재료를 회원 및 청로몽 수강생 간식으로 증정하였다.



○상량식 앞둔 금륜사 방문



이기향 원장과 정대련 부원장은 6월 30일, 금륜사 대웅전 상량식 하루 전 금륜사를 방문하여 본각스님께 금일봉과 축하 인사를 전하였다.

○성파스님 친견



사무국 소식

이기향 원장과 정대련 부원장은 6월 30일,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를 방문하여 중정 성파스님을 친견하였다. 중정스님께서는 옷칠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으로 불교 미술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강조하는 한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불교는 조선시대의 이름없는 많은 재가 여성불자들의 숨은 공로 덕분임을 강조하였다.

○성평등불교연대 제8회 마하마아페스티벌 개최



5월 18일 인사동 조선살롱에서 성평등불교연대는 제 8회 마하마아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공동대표인 남동현 108인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 그것도 조선살롱에서 ‘이웃 종교: 가톨릭, 개신교, 유교, 천도교의 여성대표들이 영성을 말하다’는 주제의 수다 한마당과 신명나는 굿 한마당까지 영성이 어우러지는 종교 축제는 아름다운 어울림의 한마당입니다.

이러한 어울림의 한마당은 의상조사의 말씀대로 ‘법성 원융무이상입니다. 법의 성품 원만하고 결핍 없어 두 모습이 따로 없는 깨달음의 세계 모습’ 이라고 행사의 문을 열었다.

김인숙 고문, 이란 부원장, 노인자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단장, 사기순 4차 108인, 조정숙 국장이 참석하였다.



○불교영적돌봄가협회 창립식 참석

6월 4일 이기향 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한 불교영적돌봄가협회 창립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불교영적돌봄가협회는 금륜사회주 본각스님이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맡은 돌봄 단체이다.



○전임원장단 만남

이기향 원장은 6월 25일 서초동 포포 식당에서 전임원장들께 상반기 사업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안 논의와 여러 유용한 생활정보 공유, 귀한 수행 경험담을 나누며 선물도 교환하였다. 이어 식당 가까이 사는 김애주 고문댁을 방문하여 살아온 날들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여성불자108인회 제16회 나눔바자 성료 (회장 남동현, 6차 108인)

5월 24~25일 본원이 청운동 불교여성광장으로 이사한 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원으로는 16회째였다. 수익금이 3,000만 원을 넘겨 회원들은 역대급이라고 자평하며 흐뭇해했다. 계획 단계에서 “바자는 축제 즉, 잔치처럼 즐겁게!” 하자는 취지를 잘 살린 셈이다. 회원들은 비록 준비과정에서는 힘들었지만, 이틀간 아주 즐거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이웃에서 갤러리를 하고 있다는 중년의 한 주민은 동네가 살아난 것 같다고 희망찬 말을 전했다.



회향은 3주 후 호암미술관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단체 관람하는 것으로 마쳤다.

108인회에서 주관하는 바자는 108인의 날과 워크숍, 사찰순례와 함께 본원의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많은 회원의 참여와 지원이 요구되며, 각 차수장과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협조를 해야만 치러낼 수 있는 행사이다. 그리하여 연초 차수장(임원)회의에서부터 양평코바코에서의 워크숍(3월 30일)까지 회원들이 최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감하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시된다. 4월에는 품목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5월에는 품목과 전시 등의 구체안을 만들었다. 동시에 온

라인, SNS주문판매를 진행했다. 각 차수에서는 각자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여 갔다. 그리고 지원이나 안내가 필요한 차수에는 선배 차수에서 도움을 주려는 모습도 정겨웠다.



안내장 발송이 1~2개월 전에 마치지 못한 점은 옥의 티이다. 취소된 불교르네상스의 꿈Ⅲ과 <청로몽>사업이 겹치면서이다. 하지만, 인근의 공공기관과 주변 상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냈다. 이를테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동장 참석, 청운동파출소 행사 지원, 아동복지센터와 경복고교의 주차장 활용, 주변의 상가와도 친근해졌다. 주변에서 갤러리를 하는 분은 청운동이 살아나는 것 같으며 매우 좋아하였다. 다소 먼거리의 국수집 사장까지도 다녀갔다. 양경윤 전회장 등은 비지땀을 흘리며 청운동과 효자동을 뛰어다녔다. 덕분에 최재형 전 의원과 종로구청장도 다녀갔다.

우리 건물 여건에 맞추어 주차장에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간이 식탁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과 파라솔 2개를 준비하였다. 부추부침개, 음료, 샌드위치 등을 손님



산하기관 센터 소식

2024 나눔바자 기증품 현황

번호	이름	소속	품목	수량
1	약천사	남동현님	부추부침개 600인분	
2	보경스님	지인		
3	강영자	6차	의류	107점
4	공명희	11차	장식 벨트	1점
4	구선희	이정호님	상의(비로드, 니트, 스웨터), 바지, 치마, 가방, 화장품 파우치, 얼굴마사지 스킨,가방,목걸이	13점
5	김순자	11차	국산 흰콩1말,검정콩1말, 쌀10kg 등	3점
6	김순철	6차		다수
7	김양희	6차	의류	4점
8	남동현	6차	핸드메이드 수세미	100장
9	노인자	5차	남·여가방, 의류, 신발, 액세서리, 각종 생활용품	12박스
10	박 연	10차	떡	1박스
11	배명숙(김해자제자)	김순철님	차 받침	다수
12	송은주	지인		
13	우인순	11차	핸드백, 여행용가방, 유명 브랜드 가방 3점, 버버리 모자, 핑크 플러치 백	7점
14	이 란	8차	다관2, 모자1, 가방1	4점
15	이순이	2차	의류	4점
16	이지은	3차	떡	2박스
16		11차	락앤락 플라스틱 물통, 컬러 텀블러, 스테인레스 텀블러 다수와 고급향초 소, 중사이즈, 디퓨저	다수
17	이해남	11차	가방, 브로치, 선글라스, 장식품 등	6점
18	이현자	11차	부채	45개
19	정대련	6차	A-9태블릿pc	1
20	조정숙	6차	올리브오일, 인견원단, 머플러, 백초효소(13년)5병	다수
21	한숙희	2차	수제 부채	5개
22	함양자	11차	구찌가방, 손거울, 장식품 등	4점
23	홍경희	2차	의류 3박스, 다구세트, 텀버선 등	다수
24	황외숙	4차	옷걸이	30개
25	하봉자	10차	『모정불심』(박원자 지음)	100권

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 호응이 좋았다. 4층까지 계단이 높고 비좁아 물건을 운반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회원들이 오르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넓고 사람들이 평소 북적이는 곳으로 바자의 광장을 옮기자는 의견도 있다.



김인숙 고문은 격려의 차원에서 주열리와 호암미술관 관람 제안과 함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바자를 마치는 날 이란 부원장은 수고한 이들을 위한 저녁식사 제공이 있었다. 기증품은 왼쪽 표와 같다.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연, 10차 108인)

4월 29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자조모임인 좋은벗은 문화예술활동 일환으로 삼각산 옥천안을 참배하고 마음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 9차 108인)

〈차와선 3〉 제9강. 4월 29일 지리산 하동 상선암(주지 보성스님)에서 제다체험으로 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김홍근교수는 망상에 꼬달리는 생명의 삶보다는 평상심을 유지하며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의 삶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24명이 상선암에서 세작 햇차를 따서 고온에 볶고, 볶은 차를 양손에 들어갈만큼 원을 만들어 좌·우로 20회 돌려 다시 풀어서 재반에 발쳐 건조기에 넣고 일정 시간이



산하기관 센터 소식



지난 후 다시 가마솥에서 가향 공정을 거친 후 식혀 차를 완성했다.

수강생들은 상선암 일정을 마치고 7분의 성현이 성불하여 칠불사로 불린다는 하동의 칠불사를 찾아 대웅전, 문수전을 참배하고 이어 아자방을 둘러보았다. 칠불사 아자방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특별한 곳으로, 난방을 하면 석 달 열흘 동안 온기를 유지하는 독특한 구조이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으로 1000년 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일행은 칠불사 스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다문화행복가족센터 (센터장 노인자, 5차 108인)

5월 11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어린이대공원에서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한 2024 모두하나대축제 부스를 배정받아 다문화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행사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매월 두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4월 14일, 5월 12일)는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을 읽고 발표한 후 미니바자를 개최하였다. 6월 9일 구희철 선생으로부터 슷츠 동영상강의를 받았다



○위즈덤합창단(단장 이호옥, 8차 108인)

4월 8일 합창단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선림사로 위



크숍을 다녀왔다. 선림사 보우법사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을 받고 조별 장기자랑, 퀴즈대회 등 수학여행을 추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24일 본원 주관 제16회 나눔바자 오프닝에 성공적인 바자를 축원하는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렸다,

○날란다 독서모임(반장 조명숙, 8차 108인)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10번째 독서 책으로 『지금 이순간을 살아라』를 선정하여 주1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전체 10장 중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제하였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지혜아카데미(대표 이영미, 6차 108인)

2강 4월 19일 백경임 1차 108인 '부처님의 상담법', 3강은 5월 17일 최혜경 2차 108인 '잘 먹는 밥이 보약이다', 4강은 6월 21일 이지현 4차 108인 '원효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다'를 강의했다.

백경임 교수 강의에 호응이 높아 하반기 명상리더십센터에서 이어서 하기로 했다. 최혜경건강밥상센터장은 열무김치를 그리고 김형인 교수는 이지현 박사의 저서 『골든 플랫폼』을 수강생 모두에게 보시하였다.



회원 동정

○유윤희(11차 108인, 미국 시애틀 거주)

5월 8일부터 15일까지 본원 회원 백경임(1차 108인), 박원자·김지영(5차 108인), 김현미(11차 108인)는 서경애 회원과 함께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유윤희 11차 108인댁을 방문하였다. 2023년 11월, 유윤희님이 고국을 방문하여 이들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경험이 신선하여 유윤희님의 초청으로 워싱턴에 거주하는 이웃 미국인과 이들이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종교는 달라도 불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난다면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리라 믿었고 불교여성개발원을 알리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이기로 했다고 했으며, 유윤희님은 김지영님에게 개발원 로고와 의미가 담긴 현수막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했고, 김지영님은 그것은 물론 행사에 필요한 여러 물품까지 실어갔다.

유윤희님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미국의 지인들에게 불교의 수행법이 어떻게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두 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바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첫 번째 행사는 유대인 커뮤니티 그룹과 함께였고, 두 번째 행사는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 유대계 미국인이 섞인 모임이었다.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고 했다. 유윤희님은 "항상 한국의 도반들에게 많은 미국인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모임에 참여한 다른 분들도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그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불교여성개발원 108인 멤버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 주

회원 동정

에서 처음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뻐다. 이 행사의 목표는 불교가 무엇인지, 또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교문화를 서로 나누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초청 연사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의 사명은 여성 불교도의 영적 문화를 변화 혁신하여 그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가꾸도록 돕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가족, 종교 공동체, 사회 내에서 불교적 자비와 평등의 이상을 구현하는 여성 리더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싱턴 주 연방 판사, 심리학 교수, 교사 출신 등의 유대인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을 소개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따르는 어떤 수행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이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이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첫 연사로 등장한 백경임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는 부처를 초월적인 신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바를 진리로 따르는 종교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불교의 수행 목표는 단지 깨달음이 아니라 탐욕과 증오, 그리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인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면 탐진치의 세 가지 독을 여의고 집착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했다. 더불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과법을 일상의 인간관계에 적용

해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연사로 박원자님은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 한국의 여러 수행방법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108배 수행을 실천과 함께 소개하였다. "108배 수행은 다른 수행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지만 다른 수행과 다른 점은 참회와 감사, 그리고 발원을 담은 점"이라고 하였다. "108배 수행의 자세는 수백 가지의 요가 자



회원 동정

세를 압축한 형태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여서 절을 하면 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이 수행은 누구든 방식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다도명상 수행을 하는 김지영님은 “암투병중 관세음보살 사진을 얻게 되는 인연으로 불교를 접하고 불교 다도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다도명상을 시작했으며, 그녀의 작은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김지영님이 다도 시연을 하는 동안 참석자 전원은 다도 동작에 집중했고, 차를 마시면서 모든 감각에 집중하는 오감명상과 우주의 기운을 찻잔에 담아보고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차명상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 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80세 교민으로, 11차 108인 설자 워낙님도 합류하여,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08배 시범을 보였고, 서경애님은 이벤트에 필요한 모든 일에 성심껏 동참하고 도왔다.

참석한 이들 모두 서로 다른 배경, 종교, 문화, 국적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마침 부처님오신날이어서 참석자 모두 작은 연등을 만드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노인자(5차 108인)



4월 7일 불교박람회에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한 호두, 호두기름, 호두와 친환경 찹쌀로 만든 호두누룽지를

판매하였다. 많은 회원들이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 이영미(6차 108인)

4월 2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안성 전용복 칠예연구소에서 '전용복& 옷칠리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옷칠 전시회를 기점으로 압구정동 세미성 샵에 옷칠 작품 갤러리를 꾸며 전시하고 있다.



○ 이인자(2차 108인)

4월 23일부터 5.2일(토)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호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이기향원장, 김애주 고문 등 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세라(다문화가족)

5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한 해외불자 연등만들기 대회에 참석하여 수상하였다.

○ 진명순(4차 108인)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신촌더이름 1이호에서 '바람소리...풍경소리...' 주제로 초대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4.4.1~2024.6.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백미현(10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이수진(10차)	30,000	민선정	30,000
김순철	700,000	사기순(4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이시구(11차)	90,000	박말희	15,000
박원자	600,000	서혜경(1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이영희(8차)	20,000	박문숙	30,000
원유자	600,000	성민선(3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이예숙(11차)	30,000	박복순	15,000
이영미	1,200,000	손미영(7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이은경(11차)	30,000	박영재	30,000
이정호	2,000,000	손미원(9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이종용(조명숙)	30,000	박지선	30,000
정철재	1,200,000	손인희(9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이진형(11차)	40,000	박홍우	30,000
최혜경	300,000	송현주(4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이혜숙(9차)	30,000	박희상	30,000
황순연	1,200,000	신용현(9차)	1,000,000			임정애(6차)	30,000	서혜정	30,000
황외숙	300,000	안수연(11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		전영숙(8차)	30,000	선문스님	30,000
		안 영(10차)	1,000,000	강명희(6차)	60,000	정은희(6차)	30,000	송만순	60,000
		안애원(7차)	1,000,000	강순주(11차)	30,000	정지원(7차)	30,000	신은영(자우스님)	30,000
		양숙자(5차)	1,000,000	강옥란(7차)	30,000	정혜정(9차)	30,000	안미경	30,000
		양정희(9차)	1,000,000	강옥희(7차)	30,000	조귀자(9차)	30,000	안석자	30,000
		양재화(7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조민기(11차)	30,000	연명순	30,000
		어순아(9차)	1,000,000	게미향(8차)	30,000	조은수(2차)	30,000	왕민영	30,000
		엄희원(10차)	1,000,000	고은자(10차)	30,000	조정숙(6차)	30,000	원유자	30,000
		오응옥(3차)	1,000,000	구윤임(11차)	40,000	조현숙(10차)	30,000	유명숙	30,000
		우인순(8차)	1,000,000	권영순(11차)	30,000	주찬옥(6차)	30,000	유현영	40,000
		윤정로(9차)	1,000,000	김선연(9차)	30,000	채진영(11차)	30,000	윤용옥	15,000
		이경자(5차)	1,000,000	김수향(11차)	30,000	최복란(8차)	30,000	이강희	15,000
		이계경(4차)	1,000,000	김양희(6차)	20,000	최순애(11차)	30,000	이미선	90,000
		이두영(10차)	1,000,000	김 연(11차)	20,000	최은희(9차, 부산)	30,000	이숙자	30,000
		이명숙(7차)	1,000,000	김영미(6차)	30,000	최은희(9차, 제주)	30,000	이승자	30,000
		이순이(3차)	1,000,000	김옥주(7차)	20,000	최희영(7차)	30,000	이영재	30,000
		이연숙(1차)	1,000,000	김윤숙(11차)	30,000	한주영(10차)	30,000	이윤구	30,000
		이원표(8차)	1,000,000	김창옥(7차)	30,000	한채화(9차)	30,000	이윤희	30,000
		이윤희(10차)	1,000,000	남동현(6차)	30,000	한혜원(7차)	40,000	이재영	30,000
		이인옥(3차)	1,000,000	남동화(3차)	30,000	함양자(11차)	40,000	이정애	30,000
		이인자(2차)	1,000,000	노희순(3차)	15,000	황남채(1차)	30,000	이정호	30,000
		이재심(8차)	1,000,000	문보경(6차)	30,000	황명자(6차)	30,000	이종열	30,000
		이주연(6차)	1,000,000	박경현(11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이주현(4차)	1,000,000	박귀원(8차)	30,000	황수남(9차)	30,000	이혜남	30,000
		이태영(9차)	1,000,000	박정희(6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이화선	30,000
		이현아(10차)	1,000,000	박혜옥(11차)	30,000			임정순	15,000
		이현주(10차)	1,000,000	배순자(6차)	30,000	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		임주연	30,000
		이혜원(11차)	1,000,000	배정선(9차)	10,000	고외숙(7차)	100,000	장영선	30,000
		임현주(7차)	1,000,000	변경이(8차)	20,000	김배향(9차)	100,000	장윤실	30,000
		장미숙(9차)	1,000,000	서은숙(6차)	30,000	김순자(11차)	60,000	전미옥	30,000
		전나미(7차)	1,000,000	서해선(11차)	30,000	배영숙(10차)	200,000	정명모	30,000
		전영자(3차)	1,000,000	손유림(11차)	30,000	최수영(11차)	120,000	정숙인	90,000
		정명자(8차)	1,000,000	손인애(9차)	30,000	한경애(11차)	120,000	이재명(정원일)	30,000
		정미령(8차)	1,000,000	송종옥(9차)	30,000	홍경희(2차)	20,000	정주현	30,000
		정인향(11차)-1차분	500,000	송주의(9차)	30,000			정희자	30,000
		정진원(7차)	1,000,000	송혜진(8차)	30,000	회원회비		조귀자	30,000
		조명숙(8차)	1,000,000	신숨이(11차)	30,000	강희출	15,000	조여경	30,000
		조영우(7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권은량	30,000	조우상	30,000
		조재란(10차)	1,000,000	안인자(9차)	20,000	김어석	40,000	조정숙	60,000
		조정현(8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김연희	30,000	진승연	30,000
		조희금(2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김영희	30,000	진여스님	90,000
		최경분(9차)	1,000,000	유진희(6차)	30,000	김정희	30,000	최비안	30,000
		최나영(10차)	1,000,000	유화영(11차)	30,000	김학엽	15,000	최순진	30,000
		최수영(11차)-1차분	500,000	윤영희(11차)	30,000	김현숙	30,000	하양자	30,000
		최영옥(9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나경윤	15,000	한승우	20,000
		최운정(3차)	1,000,000	윤희영(8차)	10,000	노지숙	30,000	허난영	30,000
		최혜숙(4차)	1,000,000	이기향(1차)	90,000	도인희	30,000	허영숙	3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4.4.1~2024.6.30)

형난옥	30,000
혜진스님(배영철)	40,000
홍숙기(진여스님)	30,000
홍점례	15,000
황유진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강인영	40,000
김형숙	90,000
류인숙	90,000
박원자	450,000
손미영	360,000
송옥순	90,000
신수영	30,000
유옥준	90,000
임주연	9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귀빈여행사(양애자)	20,000
김덕남(정대련)	1,080,000
김연수(5차)	300,000
김정희(9차)	150,000
김종숙	30,000
노경훈	1,080,000
민경란(9차)	1,080,000
민성돈	30,000
손경수	600,000
손광열(정대련)	1,080,000
손성호(정대련)	1,080,000
손수일(정대련)	1,080,000
손연홍(정대련)	1,080,000
송은주(11차)	1,080,000
오세람(정대련)	1,080,000
오연홍(정대련)	1,080,000
오윤우(정대련)	1,080,000
이영주	2,000,000
이인자고문	900,000
이병두(전영숙추천)	
	1,000,000
이해남	1,080,000
정대련(6차)	420,000
정동식(정대련)	1,080,000
최정현(정대련)	1,080,000
황규잠(정진희권선)	90,000
11차 108인	3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불교르네상스의꿈2) 약정 잔액

강순주(원유자 권선)	
	1,080,000
권수형(4차)	360,000
김연수	180,000
김매주고문	1,000,000
김용숙(7차)	1,080,000
김인숙고문	62,315,750
김정희(9차)	650,000

김종숙	230,000
김형숙(정진희 권선)	350,000
류인숙(5차)	150,000
민경란(9차)	2,160,000
박순(1차)	9,000,000
배영숙(10차)	1,080,000
손미영(7차)	1,812,000
손미원(9차)	80,000
송옥순(정진희 권선)	
	450,000
신병옥(신제정미스)	
	1,000,000
신수영(정진희 권선)	140,000
양경윤(5차)	1,800,000
유옥준(정진희 권선)	510,000
이시구	1,080,000
이영주(7차)	4,680,000
이영희(8차)	780,000
이인자고문	4,200,000
이철호(원유자 권선)	
	1,080,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780,000
조정숙사무국장	432,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1,080,000
형난옥(6차)	7,080,000
홍경희(2차)	432,000
황규잠(정진희 권선)	
	48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다문화봉사단/교정교회센터/

우바이예찬/재소자영치금 / 기타)

귀빈여행사(양애자)	20,000
김선옥	100,000
김영희	180,000
김인숙	399,000
김지영	100,000
김진	80,000
남혜정	50,000
박기옥	80,000
백경임	100,000
변혁주	200,000
이기향	3,464,000
이인자	100,000
이정호	80,000
정대련	420,000
조정숙	38,000
황수경	180,000
황외숙	80,000

우바이예찬 후원금

이기향	200,000
이영희	100,000
조정숙	100,000
형난옥	10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김선옥	150,000
김여주	180,000
김옥숙	90,000
보우법사	1,200,000
서예석	60,000
신지울	100,000
신현옥	90,000
윤인숙	90,000
이기향	200,000
장미숙	270,000
황경자	180,000
황은복	18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권기란	40,000
권해영	30,000
김미영	40,000
김민경	30,000
김연성	90,000
김지현	60,000
김혜미	60,000
김향조	10,000
김희정	851,000
박소현	20,000
박영숙	90,000
오해진	30,000
윤정은	30,000
이선아어린이집	20,000
이영란	60,000
전주옥	20,000
정별	30,000
최다혜	30,000
한경숙	60,000
한정미	300,000
황화성	150,000

108인 사찰순례

김외숙	100,000
김혜령	50,000
남동현	100,000
박원자	100,000
전영숙	50,000
정대련	50,000
정은희	50,000
이기향	150,000
조정숙	50,000

금강경 회향보시금

김선옥	100,000
김영희	100,000
김용숙	100,000
김재란	100,000
김혜령	100,000
남동현	100,000

노숙령	200,000
박종덕	100,000
백경임	100,000
성영란	100,000
송은주	100,000
안기순	100,000
양정희	100,000
원유자	100,000
이기향	200,000
이영주	100,000
이윤희	100,000
이인자	100,000
이정호	100,000
황수경	100,000
황은복	100,000

바자 후원금

강미중(5차)	500,000
강원자원	300,000
계미향(8차)	100,000
공명희(11차)	15,000
김순자(11차)	15,000
김연수(5차)	100,000
김영희(9차)	100,000
김옥희(5차)	200,000
김외숙(2차)	200,000
김진(2차)	100,000
김형인(9차)	200,000
노숙령(4차)	300,000
노인자(5차)	100,000
박근연(1차)	300,000
박기옥(10차)	50,000
하봉자(0차)	300,000
안기순(8차)	180,000
양경윤(5차)	200,000
양정희(9차)	200,000
양하영(8차)	100,000
왕정미(5차)	100,000
우순기(5차)	100,000
원유자(4차)	100,000
이기향(1차)	395,000
이영근(5차)	100,000
이윤희(10차)	300,000
이은영(1차)	200,000
이인자(2차)	100,000
이정숙(11차)	100,000
이정호(2차)	100,000
이해남(11차)	60,000
이해옥(11차)	100,000
전영숙(8차)	100,000
정경연(1차)	200,000
정재선(9차)	100,000
정진희(3차)	100,000
진정순(3차)	100,000
최경분(9차)	200,000
형양자(10차)	100,000

황경자(8차)	100,000
황수경(3차)	100,000
황외숙(4차)	190,000
9차 보시금	300,000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 이후 국제정연발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정회원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 활동 센터 1개 이상

선택의 기회

● 교육과 프로그램 합인

(회원활동 6개월 이상)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2

[후원 안내]

○ 불교여성개발원

국민은행

023501-04-031123

예금주: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국민은행

023501-04-095228

예금주: (사)지혜로운여성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계좌

농협

301-0085-6744-91

국민은행

023537-04-003040

예금주: (사)지혜로운여성

(불교여성회관)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